

# 보도자료

(엠바고) 4월 28일(화) 오후 12시

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대외협력팀: 장준용 팀장, 권익만 담당

052-217-1222 / 010-8547-1004

시설팀: 김민한 팀장, 한지우 파트리더

052-217-1204

## 동남권 창업 전초기지 UNIST, '유하 챌린지관' 첫 삽

- 총 480억 투입, 이준호 명예회장 300억 기부·정부 지원 결실 -
- 시제품·투자·실증·글로벌 진출까지 딥테크 전주기 원스톱 지원 -
- 연면적 1만4004㎡,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 창업·연구 복합시설 -

지역 유망 스타트업을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키울 동남권 딥테크 창업 거점이 울산에 들어선다.

UNIST(총장 박종래)는 28일(화) 학술정보관 앞 잔디광장에서 ‘유하(裕河) 챌린지관’ 기공식을 열고 창업·연구 복합시설 조성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울산 지역 벤처 1호 기업으로 성장한 덕산그룹 이준호 명예회장의 사재 300억 원 기부에 정부 재원이 더해진 민·관·학 협력 프로젝트다.

UNIST는 유하 챌린지관에서 연구실 기술을 시제품으로 구현하고, 창업팀을 투자·제조 실증·해외 진출 단계까지 끌어올려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딥테크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공식에는 이준호 덕산그룹 명예회장과 이수훈 회장, 송재호 UNIST 이사장, 박종래 총장,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편상훈 울산연구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행사는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와 축사, 기부자 인사, 기념 점화식 순으로 진행됐다.

‘유하’는 이 명예회장의 호다. 넉넉할 유(裕), 물 하(河)를 써 ‘강물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담았다. UNIST는 창업 전초기지가 될 이 건물에 그의 호를 붙였다.

이 명예회장은 “40여 년 전 울산에서 사업을 시작하며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해왔다”며 “이곳이 후배 창업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 않는 도전과 혁신의 요람이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풍요로운 세상으로 이어지는 전초기지가 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유하 챌린지관은 학술정보관 뒤편 가막못 인근에 들어선다. 시제품 제작실, 창의회로랩, 슈퍼컴퓨팅센터, 스마트 헬스케어센터, 창업오피스, 컨벤션홀을 한 건물에 담은 창업·연구 복합시설이다. 총사업비는 약 480억 원, 연면적은 1만4004.66㎡다.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2028년 준공 예정이다.

UNIST는 유하 챌린지관을 ‘동남권 혁신창업본부’로 운영한다. 유니스트기술지주가 교원·학생 창업팀 발굴부터 시제품 제작, 사업모델 검증, 초기 투자, 후속 투자유치까지 맡는다. ‘유하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난도가 높은 아이디어를 선별해 사업화 가능성도 높인다. 연구실과 입주기업을 한 건물 안에 배치해 기술이전과 창업 실행 속도를 함께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챌린지관에서 배출된 기업은 지역 스타트업파크와 산업단지,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으로 확장해 양산 검증과 시장 진입에 나서게 된다.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창업하고 자리를 잡는 청년 창업밸리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도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4대 과기원 중심으로 ‘과학 중심 창업 도시 구축 지원 확대’를 위한 추경예산 458억 원을 반영했다. 유하 챌린지관은 UNIST의 연구 역량과 울산의 제조 기반을 결합해 이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핵심 시설로 조성된다.

박종래 UNIST 총장은 “유하 챌린지관은 대학의 연구 성과를 제품과 기업, 일자리로 바꾸는 실전 창업 플랫폼”이라며 “청년 학생과 연구자가 이곳에서 기술을 검증하고 투자받고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뿌리내리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창업기업을 키워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